

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, 돌연 사망

□ 2006년 12월 21일, 니야조프(Niyazov)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하여 세계를 놀라게 함.

□ 21년간 비이성적인 독재통치

- 니야조프 대통령은 1985년부터 21년간 동국을 통치하였으며 1999년 12월 의회 투표를 통해 종신 대통령이 됨.
- 자신을 “투르크멘의 아버지”라고 부르는 등 개인 우상화에 몰두하고, 얼음궁전 건설을 지시하는 등 비이성적인 독재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음.
- 장발, 수염, 금니를 금지하는 등 국민 일상생활까지 철저히 통제하였고, 언론 등 정보매체와 야당활동을 극도로 억압하는 한편, 일절의 개혁을 거부하고 가스·전력의 무료 공급, 주택·기본 식료품 요금 공급, 보조금 지급, 물가통제 등 대중영합적 정책을 펼침.

※ 투르크메니스탄 개황

- 면적 : 488천 km² (한반도의 2.2배)
- 인 구 : 5백만 명 (2005)
- 수 도 : Ashkgabat (41만 명)
- 민족 및 종교 : 투르크멘인 (85%), 회교(수니파)
- G D P : 64억 달러 (1인당 1,293 달러) (2005)
- 주 요 자 원 : 천연가스 3조 m³(세계 12위), 원유 5억 배럴

□ 정국혼란 불가피

- 니야조프 대통령은 절대권력자로 헌법에서조차 후임자 선출방법을 규정하지 않았으며, 세뇌교육을 받아 온 국민들도 정신적 공황을 겪고 있어 정국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.
- 후계자 결정을 위한 최고 대표자 모임인 국민협의회 회의가 26일 소집될 예정이며 망명중인 야당세력들이 귀국을 서두르고 있음.
- 관측통들은 유력한 후계자로 이리나 니야조바(딸)를 지목하고 있으며, 무라트 니야조프(아들), 레드제포프(대통령 보안실장) 등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음.

□ 선진국들의 동국 자원 확보 경쟁 치열해질 전망

- 니야조프 대통령의 사망으로 러시아, 중국, EU, 미국 등 선진국들의 동국 자원 확보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.